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이두희*

1. 들어가는 말

이미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번역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통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 번째 이유는 언어의 변화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모든 언어는 변화한다. 이러한 언어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거나 기존 성경을 개정해 주지 않는다면, 성경은 더 이상 이해될 수 없는 책이 되고 말 것이다. 맞춤법도 제정되지 않았던 1911년에 나온 우리말 최초의 완역 성경인 『성경전서』를 오늘의 독자들에게 주고 읽어 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도 읽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¹⁾ 어떤 곳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거나 기존 성경을 개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서학의 발전이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성서학이 전제된다. 다시 말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번역 대본이 될 믿을 만한 원문이 있어야 하고, 그 원문에 사용된 언어와 그 원문

*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 연구소 소장. dhlee@bskorea.or.kr. 본 논문은 2022년 4월 23일 안양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 113차 한국신약학회 정기학술대회 “성서번역의 이상과 현실: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참고. 『성경전서』(1911)의 롬 1:1과 1:10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드려 수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퍃흠을 넘었스니”(롬 1:1). “구호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흔 길을 벗어 못츨내 너희에게 나아가려호노라”(롬 1:10).

의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서학적 지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오고 있다. 예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본의 발견과 언어학의 발전, 새로운 주석 방법의 적용 등을 통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온 번역본들은 새로운 학문적 성과에 비추어 새롭게 번역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발생한다.²⁾

언어의 변화와 성서학의 발전을 반영하여 성경을 새롭게 출간해야 할 이유가 어느 정도 수긍되더라도, 굳이 ‘성경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번역할 필요까지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는다. 아예 번역된 성경이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공인된 성경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 성경을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번역 이론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번역은 기본적으로 번역의 대본이 되는 원문을 원천언어(source language)에서 대상언어(target language)로 옮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번역의 대본이 되는 텍스트는 문자라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이때 번역 대본이 되는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대상언어로도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원천언어와 대상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원천언어의 형식을 충실히 전달한다고 해도 그 내용까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원문의 형식을 희생해서라도 원문이 의도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 번역자는 선택에 직면한다. 원문 텍스트의 형식과는 어긋나더라도 그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내용 전달에서 다소의 한계가 발생하더라도 원문의 형식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번역 이론가들은 번역 대본의 형식을

2) 영어 성경의 경우에도 형편은 비슷하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 왔고,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King James Version(1611) 성경을 오늘날 영어권 독자들에게 주고 읽어 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라. 오늘의 독자들은 1611년판 King James Version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표기법도 다르고, 같은 단어도 쓰임새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881년에 신약이, 그리고 1885년에 구약이 개정되어 Revised Version이 나온 이래로, 1952년에 Revised Standard Version으로, 1989년에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으로 일정한 주기를 따라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현대 독자들은 이 성경을 읽는 데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이 성경이 다시 한 번 개정되어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Updated Edition으로 출간되었다. 이처럼 대체로 한 세대를 주기로 성경은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되어 왔고, 앞으로 형편은 비슷할 것이다.

보존하는 일에 더 중점을 두는 번역을 ‘형식 일치(formal correspondence)’ 번역이라 부르고, 형식보다는 정확한 내용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번역을 ‘내용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번역이라고 부른다.³⁾ 형식 일치를 중시하며 번역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번역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원문과 관련된 언어,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 지식을 요구받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독자들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형식 일치를 중시하며 번역된 성경이 이미 있더라도, 독자들이 읽기 쉬운 성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용의 동등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성경을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 성경의 경우, 형식 일치를 중시하며 번역된 King James Version(1611)의 전통을 계승한 Revised Standard Version(1952)이 있었지만, 내용의 동등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 New English Bible(1970)이나 New International Version(1978)이 나온 사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신학적인 이유가 작용할 수도 있다. 번역에는 불가피하게 원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특정 단어나 문구의 번역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신학적 입장과 배치된다고 생각할 경우, 기존 성경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새로운 번역을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New American Standard Bible(1995)이나 English Standard Version(2001)을⁴⁾ 발간한 것이 그러한 보기에 해당한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을 비롯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여러 종류 나와 있는데 2021년 11월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새로 출간되었다. 그렇다면 『새한글성경』⁵⁾을 새롭게 번역하여 출간하도록 만든 계기와 배경은 무엇인가? 이때 『새한글성경』이 따른 번역 원칙은 무엇인가? 『새한글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 기존 우리말 번역 성경들과 차별화되는 주요 번역 특징은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간략히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

3) E. A. Nid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69), 12-32.

4) 그 뒤로 2007, 2011, 2016년에 세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5) 『새한글성경』은 앞으로 신약과 구약을 모두 담아 출시될 성경을 가리킨다.

6)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김주환,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 『신약연구』 20 (2021), 729-768과 임성욱, “성경 번역의 문화정치: 『새한글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장애 및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42 (2022), 169-202를 참조하라.

2. 한글 성경 번역본들에서 관찰되는 번역의 두 흐름과 새로운 시도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존 우리말 번역 성경들의 현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여 대한성서공회의 주관 하에 여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성서학자들이 엄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거나 새로 번역한 번역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이하 『개역개정』),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 이하 『공동개정』), 『성경전서 새번역』(2004, 이하 『새번역』)을 들 수 있다.

2.1. 형식 일치를 따른 번역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우리말 성경 번역의 역사는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잘 알려진 대로, 스코틀랜드연합장로회 소속의 존 로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매킨타이어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협력하여 1882년 3월 24일 중국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출간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우리말 번역 성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⁷⁾ 로스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자신이 따른 원칙을 “본문의 의미와 한국어 어풍에 적합한 절대적인 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⁸⁾ 한편,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미국성서공회의 지원으로 1885년에 국한문성서인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출간하였다.⁹⁾ 이 성서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번역한 성서로, 한자로 표기한 말은 그 옆에 한글로 음이나 훈을 달아 주었다. 이 두 번역 성경이 이후 우리말 번역 성경의 물꼬를 튼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중요한 기초가 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온 뒤로는 성서번역자회가 조직되었다. 번역자회는 미국 북장로회의 언더우드와 게일, 미국북감리회의 스크랜튼과 아펜젤러, 영국성공회의 트롤로프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¹⁰⁾ 이들은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고쳐서 쓰기보다는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

7)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66-67.

8) “로스가 라이트 박사에게 보낸 편지(1883. 3. 24.)”,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1: 로스-루미스 문서』(서울: 대한성서공회, 2002), 38.

9) Ibid., 146-148, 153-155.

10) 1895년에는 미국남장로회의 레널즈가 추가로 임명되었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40.

내에서 새로운 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여러 과정을 거쳐 1906년에 『신약전서』의 공인역이 확정되었고,¹¹⁾ 이어서 1911년에 『구약전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둘을 묶어 1911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전서』가 완성되기에 이른다.¹²⁾ 이 『성경전서』가 『개역개정』 성경의 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성경전서』의 번역은 서둘러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전서』가 출간되자마자 곧바로 개역 작업이 시작되었고, 1938년에 『성경개역』이 나온다.¹³⁾ 그 뒤로 해방 이후 1961년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 나왔는데, 이는 195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에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다듬기 시작하여 1956년에 편집하고 1961년에 추가 교정을 거쳐 펴낸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개정하여 1998년에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 나왔다. 이는 1961년의 개정이 이루어진 뒤에,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만을 쓰는 쪽으로 어문 정책이 변화하면서 한글만으로 표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졌고, 또한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는 한글 맞춤법이 변화되면서 이를 반영할 필요도 절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동안 20세기에 이루어진 성서학 연구의 발전 결과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번역의 원칙 면에서 보자면, 『개역개정』은 앞선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정신과 원칙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¹⁴⁾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성경개역』에서 맞춤법 위주로 개정한 번역본이다. 따라서 『성경개역』의 번역 원칙이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거쳐 『개역개정』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개역』의 번역 원칙은 “번역을 하되 가능한 한 내용풀이식의 율김은 삼가야 한다. 번역은 그 수용언어가 허락하는 한 가능한 대로 축자적(逐字的)이어야 한다.”¹⁵⁾ 『개역개정』은 현재 대다수의 한국 개신교 교단에서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에게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는 데에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형식 일치를 따른 직역을 특징으로 하는 번역본인 까닭에 『개역개정』이 신앙 경력이 짧거나 젊은 세대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11) Ibid., 69.

12) Ibid., 79.

13) Ibid., 160. 1911년의 『성경전서』는 이 『성경개역』과 구분하여 ‘구역’으로 불리게 된다.

14) 서문 참조.

15) 류대영, 옥성득, 이만일,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122.

2.2. 내용의 동등성을 추구한 번역본: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

『공동개정』은 1977년에 출간된 『공동번역 성서』를 개정한 번역본이다. 『공동번역 성서』가 나올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신구교 학자들이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서 원전의 성립과 바티칸 제2공의회 이래로 일어난 가톨릭교회 내의 변화가 깔려있다. ‘하나님 vs. 하느님’ 용어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성경이 개신교 측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한 점은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큰 아쉬움을 남긴다. 번역의 원칙 면에서 『공동개정』은 『공동번역 성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명백히 틀린 것만 고치는 것이 『공동개정』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공동개정』의 번역 원칙을 알 수 있는데, 『공동번역 성서』의 서문은 ‘내용의 동등성’을 따랐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번역의 원칙은 축자적 번역이나 형식적인 일치(Formal Correspondence)를 피하고 내용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을 취하여 독자들이 원문을 읽는 사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 예로, 우리는 마가복음 1:4의 번역을 비교해 봄으로써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에 적용된 번역 원칙의 차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GNT ⁵	ἐγένετο Ἰωάννης [ὁ] βαπτίζων ἐν τῇ ἐρήμῳ καὶ κηρύσσων βάπτισμα μετανοίας εἰς ἄρεσιν ἀμαρτιῶν.
『개역개정』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공동개정』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2.3. 새로운 시도: 『성경전서 새번역』(2004)

『새번역』은 1993년에 출간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개정판이다.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1년이었고, 그 당시 명칭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이었다. 그러나 번거로움을 피하고 좀 더 친숙한 이름이 되도록 2004년부터는 『성경전서 새번역』으로 개칭하여 부르고 있다. 번역 원칙 면에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은 번역의 두 원칙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을

머리말에서 드러내고 있다. 머리말 앞부분에서는 “원어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는 것이 번역 원칙의 요약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원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와 번역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가 같도록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부연한다. 내용 일치 원칙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런데 머리말 뒷부분에서는 내용 일치 번역과 형식 일치 번역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 번역 과정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치곤 했고, “그래서 형식을 일치시키는 번역을 해도 우리의 어법에 맞고 원문과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였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전혀 딴 뜻이 전달되거나 아무런 뜻도 없는 번역이 될 때에는 뜻을 살리는 번역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형식 일치와 내용 일치 사이에서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원문에 더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을 느낄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새번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 활용되고 있는 여러 번역본들을 놓고 보면, 그 번역본들이 표방하는 번역 원칙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적인 직역도 절대적인 의역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형식 일치와 내용 일치가 일정한 범위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칙적으로 형식 일치 번역을 추구하지만 내용을 풀어 번역하는 일을 완전히 피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용 일치 번역을 내세운 번역본들도 어떤 곳에서는 형식 일치 번역을 추구하는 번역본보다 더 직역에 가깝게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¹⁶⁾

3. 『새한글성경』의 번역 지침과 원칙

3.1. 번역 지침과 원칙의 수립 배경

『새한글성경』의 번역 지침은 “다매체(multimedia)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한다는 것이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수용언어의 어법에 맞게 번역한다는 것은 모든 성경 번역의 목표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번역 원칙을 설명할 때, 형식 일치를 따른다거나 내용 동등성을 따른다고 말하지 않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다고 기술한 부분이다. 원문에 충실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형식

16) D. Brunn, *One Bible, Many Versions: Are all Translations Created Equal?*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2013), 19-36.

일치를 뜻하는가? 내용 일치를 뜻하는가? ‘원문 충실’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흑백논리식 양자택일을 피하려는 진술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 일치 번역과 내용 동등성 번역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고자 했던 『새번역』의 목표를 염두에 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한다. 짐작컨대, 『새한글성경』은 형식과 내용 두 측면 모두에서 원문에 더욱 가깝게 번역하겠다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기존 번역들의 번역 원칙과 차별화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다매체(multimedia)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기존 번역들은 기본적으로 인쇄본을 염두에 둔 번역들이었던 것에 비해 『새한글성경』은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염두에 둔 번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디지털 매체가 소통의 주요 방편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인쇄용 성경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일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성경의 번역 단계에서부터 매체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감안하여 번역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다매체를 염두에 둔 번역을 최초로 시도한 것은 독일성서공회에서 진행한 <기초성경>(BasisBibel)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¹⁷⁾ <기초성경>에 대해 소개하는 글에서¹⁸⁾ 독일성서공회의 야르(H. Jahr) 박사는 예전에 비해 독서 환경이 변화한 것이 <기초성경>의 번역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기초성경>은 인터넷 등 전자매체의 사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독서 방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독자들은 참을성이 없어지고, 정보를 더 빨리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이런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독서 매체와 독서 방법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기초성경>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한 문장의 길이를 16단어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¹⁹⁾ 또한 문장 구조도 복잡한 복문을 피하고 부문장은 하나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번역에서 다 풀어내기 어

17) 미국의 New English Translation도 인터넷을 통해 성경을 보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번역된 성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초성경>(BasisBibel)과 다른 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급되도록 한다는 것이 번역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NET는 <https://netbible.org/bible/Matthew+1>에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2022. 4.11).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인쇄용도 발간되고 있다.

18) H. Jahr, “Die BasisBibel: Herausforderungen einer Bibelübersetzung im digitalen Zeitalter”, M. Lange and M. Rösel, eds., *Was Dolmetschen für Kunst und Arbeit sei: Die Lutherbibel und andere deutsche Bibelübersetzungen*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4), 315-329.

19) 독일에서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의사소통에서 가장 효과적인 문장 길이는 14단어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기초성경>은 이를 고려하여 한 문장의 길이를 16단어 이내로 번역하기로 결정하였고, 『새한글성경』도 <기초성경>의 보기를 참고하여 한 문장의 길이를 최대 16어절 50단어 이내로 번역하기로 한 것이다. Ibid., 322-323.

려운 중요한 신학 용어나 개념어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보충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기초성경>은 기본적으로 읽기 쉬운 번역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유로운 의역으로 흐르는 것은 피하려 했다고 밝힌다.

『새한글성경』은 여러 면에서 독일의 <기초성경>을 참조하였다. 두 성경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세대를 주 독자층으로 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독서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이 읽기 쉽게 번역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한글성경』은 번역 원칙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성경>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 특히, 번역 문장의 길이를 정함에 있어서 한 문장이 16어절 50글자 이내의 짧은 문장이 되도록 번역한다는 세부 지침은 디지털 매체를 고려한 프로젝트인 <기초성경>의 원칙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새한글성경』은 다매체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형식 일치와 내용 일치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는 ‘원문 충실성’을 담보한 번역을 목표로 세부 번역 지침과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 원칙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여기에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3.2. 『새한글성경』의 번역 대본과 원칙²⁰⁾

3.2.1. 번역 대본

신약성서 번역에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그리스어 신약성서>(Greek New Testament=GNT) 최신판(현재로는 2014년에 나온 제5판)과 네스틀레 알란트(Nestle-Aland)의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e=NTG) 최신판(현재로는 2012년에 나온 제28판)을 대본으로 삼고, <큰 비평판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e. Editio Critica Maior)도 활용한다.

3.2.2. 번역의 원칙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머리말에서 밝힌 원칙들 21가지 가운데 그 특

20)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의 “머리말” 참고. 2011년 9월에 열린 대한성서공회 이 사회의 결정으로 『새한글성경』의 번역이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8월 24일까지 성경번역연구위원회에서는 『새한글성경』의 번역 원칙 수립을 위하여 8차례 모여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수립된 번역 원칙에 따라 2012년 12월 14일부터 36명의 성서학자들과 3명의 국어 자문들이 본문을 번역하고 검토하고 수정하였고, 2021년 11월에 신약과 시편을 먼저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몇 가지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원문의 긴 문장은 짧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가능하면 한 문장이 50자 내외 16어절 정도를 넘지 않게 한다.
- (2) 원문의 문학 갈래(장르)에 따른 특징을 최대한 살려 번역한다.
- (4) 대화문은 상황에 맞는 입말로 읊기며, 한국어 어법에 맞는 높임법을 사용한다.
- (5) ‘예수’, ‘성령’에는 ‘-님’을 붙이며, ‘-께서’를 붙일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한다.
- (6) 대중에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입니다’ 체인 격식체 문장으로 끝맺는다.
- (9) 원어와 우리말 사이에 수동문과 능동문, 단복수 문제 등 문법 형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문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한다.
- (10) 원문에서 어순 변형 등을 통해 문장의 일부를 강조한 경우에는 번역에서도 이를 최대한 드러내도록 한다.
- (15)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환자나 특정 사회 계층의 사람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낱말이나 표현은 문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번역한다.
- (19) 『개역개정』의 음역을 존중하되,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을 따른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고유명사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음역 표기를 따른다.

4. 『새한글성경』의 주요 번역 특징: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이분법을 넘어서

『새한글성경』의 번역 특징을 엿보게 하는 주요 번역 원칙은 “다매체(multimedia)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한다는 문장에 잘 포섭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21가지의 세부 원칙은 결국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매체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한 부분이고, 둘째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한 부분이고, 셋째는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하려는 노력의 영역이다.

4.1. 다매체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한 번역

4.1.1. 짧은 문장으로 번역

다매체 시대를 맞아 독서 환경과 독서 방법의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의사소통에서 전자 매체의 사용 영향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문장이 짧아야 한다는 관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기초성경>은 한 문장의 길이를 16단어 이내로 제한했고, 『새한글성경』도 한 문장이 16어절 50글자를 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다고 이미 설명했다. 그 결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문장은 기존의 번역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마서 1:1을 예로 들어보자.

GNT ⁶	Παῦλος δοῦλος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κλητὸς ἀπόστολος ἀρρωρισμένος εἰς εὐαγγέλιον θεοῦ,
『개역개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공동개정』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새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니다.
『새한글』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위의 표를 비교해 보면, 『개역개정』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절이 바뀌는 데도 문장이 끝나지 않는다.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 있고, 절이 끝나는 부분에서 문장도 끝나고 있다. 독자의 이해를 고려한 번역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3개의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번역되어 있다.

4.1.2. 순차적인 정보 전달(lineare Informationsvermittlung)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특이 사항은 번역문의 어순이다. 『새한글성경 신

약과 시편』은 이 편지 전체의 첫 단어 ‘Παῦλος(파울로스)’가 번역에서도 첫 단어가 되도록 번역하였다. 그 결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문은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에도 더 충실하게 순차적으로 번역이 되었다. 이것은 전자 매체를 통하여 성경을 읽는 세대의 독서 방법과도 연관을 가진다. 디지털 시대의 독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문장이나 글을 끝까지 읽고 이해하려고 기다리지 않는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 위주로 골라서 읽고, 건너뛰면서 읽기도 한다. 이런 독자의 성향에 맞추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순차적인 정보 전달(lineare Informationsvermittlung)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¹⁾ 위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로마서 1:1은 디지털 시대의 독서 방법 변화에 맞춘 짧은 문장, 순차적 문장 구성이라는 원칙을 따라 번역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4.2. 원문에 충실한 번역

4.2.1. 최신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

UBS⁵나 NTG²⁸이 이전 판본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공동서신의 경우 대비 평본 작업을 반영하여 33곳에서 원문이 달라졌다는 점이다.²²⁾ 달라진 본문 가운데 번역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최신 원문을 따르기로 한 번역 원칙을 존중하여 달라진 본문을 기초로 새롭게 번역하였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1) 벵전 4:16

『새한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창피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일로(μέρε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개역개정』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ὀνόματ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 벵후 2:18

『새한글』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로(ὄντως) 피해 벗어난 사람들에게요.

『개역개정』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거우(ὀλίγως) 피한 자들을

21) H. Jahr, “Die BasisBibel: Herausforderungen einer Bibelübersetzung im digitalen Zeitalter”, 321.

22) The Greek New Testament (5th, UBS), 3-4.

(3) 벧후 3:6

『새한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δι' ὧν), 물로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서 있던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개역개정』 이로 말미암아(δι' ὧν)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 하였으되

* 관계대명사가 단수로 바뀜으로써 해석의 선택지가 달라진 경우

(4) 벧후 3:10

『새한글』 땅도,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οὐκ εὑρεθήσεται).

『개역개정』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εὑρεθήσεται)

공동서신 이외에도 원문을 다르게 읽은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번역 원칙에 따라 최신 본문에 기초해서 새롭게 번역했다.

(1) 갈 6:2

『새한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겁니다.”

『개역개정』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개역개정』은 단순과거 명령(ἀναπληρώσατε)으로 보고 번역한 반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바뀐 원문인 직설법 미래(ἀναπληρώσετε)에 기초하여 번역하였다.²³⁾

(2) 살전 2:7

『새한글』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사도로서 무게 잡고 다닐 수도 있었습
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는 젓먹이가 되었습니
다. 유모라도 자기 자녀는 따듯이 돌보겠지요.

『개역개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
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
녀를 기쁨과 같이 하였으니

23) 『새번역』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참고. 『새번역』은 직설법 미래로 보고 번역)

『개역개정』은 ‘ἥπιοι(에피오이)’로 보고 번역한 반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바뀐 원문인 ‘νήπιοι(네피오이)’에 기초하여 번역하였다.

4.2.2. 원문의 어원, 접두어, 시제를 최대한 살린 번역

(1) 그리스어 단어의 어원과 1차 의미를 최대한 살린 번역

사전을 참조해 보면, 그리스어 단어의 뜻은 보통 어원에 기초한 1차 의미와 거기에서 확장된 2차, 3차 의미로 구분되고 있다. 독자의 이해 차원에서 보자면, 원문 단어가 쓰인 문맥을 고려하여 확장된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소통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원문을 읽는 독자가 원문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올렸을 의미인 1차 의미로 번역하고, 독자 스스로 문맥에서 그 의미를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차 의미로 번역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ἐγείρω 동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동사는 ‘일으키다’는 1차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ἠγέρθη 형태로 자주 사용된다. 기존 번역들은 ‘살아나다’(『개역개정』, 『새번역』) 또는 ‘다시 살아나다’(『공동개정』)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일으킴받아 살아나다’로 번역하였다. 1차 의미를 번역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죽어서 누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부활하시는 모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낱말의 어원을 고려한 번역의 예로는 재산 관련 단어들을 들 수 있다. 큰 틀에서는 모두 ‘재산’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κτήματα(막 10:22)는 ‘모은 재산’, χρήματα(막 10:23)는 ‘쓸 재산’, ὑπαρχόντων(눅 8:3)은 ‘있는 재산’, βίον(막 12:44)은 ‘먹고 살 돈’으로 번역하였다. 원문에 쓰인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여 드러냄과 동시에 그 어원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이다.²⁴⁾

(2) 합성동사에서 접두어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번역

그리스어 원문에는 기본 동사에 접두어가 합쳐진 동사들이 꽤 자주 사용된다. 접두어가 덧붙은 경우는 보통 강조의 의미를 더하게 되거나, 접두어

24) 다음의 보기들도 참조하라. ① ποιέω(요 2:23) - 해 보이다 ② ὑποδείκνυμι(마 3:7) - 가리켜 알려 주었소 ③ καταπατέω(마 5:13) - 마구 밟힐 (참고. ‘짓밟힐’도 가능하지만, 『새번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말을 찾아냄) ④ διώκω(마 5:11) - 뒤쫓아 박해하다 ⑤ διωγμός 뒤쫓김 (행 8:1; 9:4 등; 롬 8:35; 고전 15:9; 고후 12:10; 살후 1:4 등) ⑥ θλίψις(행 11:19; 14:22; 롬 8:35; 12:12; 고전 7:28; 고후 1:4; 엡 3:13 등) - 억눌림 ⑦ ἐγείρω(롬 6:4; 고전 15:4; 엡 1:20; 골 2:12 등) - 일으킴받아 살아나다 ⑧ δειλάζω(약 1:14; 벧후 2:14) - 미끼를 던져 피다 ⑨ ἐμπλέκω(벧후 2:20) - 엮여 들다 ⑩ ροιζήδόν(벧후 3:10) - 휘휘 큰 소리를 내며 ⑪ διώκω(살전 5:15) - 쫓아가다

자체의 어감을 기본 동사에 덧붙여 주게 된다. 그런데 기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런 점들이 잘 고려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접두어가 덧붙여진 동사를 번역할 때에는 최대한 그 접두어의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였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32에서 ἐπιζητέω 동사는 접두어 ἐπι를 살려서 ‘아등바등 찾다’로 번역하거나, 마태복음 12:13에서 ἐκτείνω 동사는 접두어 ἐκ를 살려 ‘쭉 뻗다’로 번역하였다. 마태복음 13:54에서 ἐκπλήσσω 동사는 접두어 ἐκ를 살려 ‘몹시 놀라다’로, 마태복음 27:24에서 ἀπονίζω 동사는 접두어 ἀπο의 느낌을 살려서 ‘싹싹 씻다’로 번역한 것도 그러한 보기에 해당한다.²⁵⁾

(3) 원문의 시제 차이를 최대한 살린 번역

① 역사적 현재 시제의 번역

복음서를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다 보면, 과거 시제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현재 시제가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문법학자들은 이를 ‘역사적 현재’라고 부른다. 서양의 번역본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성경 번역에서 이런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살려서 번역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이런 역사적 현재 시제를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 과거형으로 번역하지 않고 현재 시제로 번역하였다. 한 예로 마가복음 2:3을 보도록 하자.

GNT ⁶	καὶ ἔρχονται <u>φέροντες</u> πρὸς αὐτὸν παραλυτικὸν αἰρόμενον ὑπὸ τεσσάρων.
『개역개정』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u>올세</u>
『공동개정』	그 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u>들고 왔다</u> .
『새번역』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u>데리고 왔다</u> .
『새한글』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u>데리고 온다</u> . 네 명이 그를 <u>들고 온다</u> .

1차적으로 역사적 현재는 묘사의 생동감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어지는 이야기

25) 다음의 보기들도 참조하라. ① ἐπιδίδωμι(마 7:9) - 들이대다 ② ἐπιποθέω(롬 1:11) - 앵타게 바라다 ③ καταγγέλλω(롬 1:8) - 둔루 알리다 ④ ἐπικαλέω(고전 1:2) - 부르며 기도하다. (예배 상황을 염두에 둬) ⑤ συνάγω(고전 5:4) - 함께 모이다

에 독자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구절의 병행본문들과 비교해 보면, 역사적 현재 시제가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각 복음서 저자의 문체적 특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② 미완료시제의 번역

그리스어 동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2시제에 속하는 미완료 시제와 부정과거 시제를 구분하여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굳이 용법을 구분하려고 하다 보면, 번역에 해석이 너무 가미되어 번역문이 장황해지기 쉬워서이다. 그러나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그냥 지나치자니 아쉬움이 남게 된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여러 학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시제의 차이를 번역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누가복음 5:26을 예로 들어보자.

『개역개정』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공동개정』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두려움에 싸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새번역』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새한글』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어요!”

이 구절에 대한 그리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καὶ ἔκστασις ἔλαβεν(부정 과거) ἅπαντας καὶ ἐδόξαζον(미완료) τὸν θεὸν καὶ ἐπλήθησαν(부정과거) φόβου λέγοντες(현재분사) ὅτι εἶδομεν παράδοξον σήμερον.

원문에서 부정과거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번갈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26) 다음의 보기들도 참조하라. ① 마 3:15; 4:5; 26:36-46 등 ② 막 1:40-41; 2:5 등 ③ 눅 24:36 등 ④ 요 1:15, 29, 38-39; 4:4-7 등

있다. 기존 번역들은 문장 구분 없이 번역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제의 차이를 변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상적인 한국어 어법에 비추어 볼 때, 연결접사로 이어진 동사의 시제는 마지막 동사의 시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문에 쓰인 동사의 시제 차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ἐδόξαζον 동사를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로 번역하여 시제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행본문 사이의 차이까지 구분시켜 주는 효과도 따라 나온다. 마태복음 9:8에서는 미완료인 ἐδόξαζον 대신 부정과거형인 ἐδόξασαν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3:21에서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러 댔다(ἐπεφώνουν).”라고 번역한 것도 미완료 시제를 고려한 것이다. ἐπιφωνέω 동사의 미완료에서 과거에 반복된 동작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보조동사 ‘대다’를 번역에 포함한 것이다. ‘대다’는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²⁷⁾ 이 구절의 병행 본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9:6에서는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다른 낱말(ἐκράυγασαν)이 쓰이기는 했지만, 시제의 측면에서 부정과거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점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다.²⁸⁾

③ 현재완료 시제의 번역

그리스어의 현재완료 시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도 단순 과거 시제와 구분시키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런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완료 시제의 느낌을 번역에 반영하는 데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누가복음 1:1을 보도록 하자.

GNT ^s	Ἐπειδήπερ πολλοὶ ἐπεχείρησαν ἀνατάξασθαι διήγησιν περὶ τῶν πεπληροφορημένων ἐν ἡμῖν πραγμάτων,
『개역개정』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공동개정』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새번역』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한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27) 네이버 사전, “대다”, <https://dict.naver.com/> (2022. 4. 12).

28) 눅 5:15-16; 6:18-19; 16:21 등에서도 미완료 시제에 주의한 번역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낱말은 πληροφορέω 동사의 현재완료형인 πληροφορημένων이다. 기존 번역들에서는 밑줄 친 부분의 바탕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단순 과거인지 현재완료인지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동사의 동작이 과거에 끝났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음을 내포하는 현재완료의 어감을 살려서 ‘이루어 놓으신 일’로 번역하였다.

4.2.3. 원문의 어순을 살린 번역

언어의 체계와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을 우리말 번역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원문의 어순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때로는 어순이 독자의 이해 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자의 강조점이나 의도가 어순에 담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번역의 원칙과 관련하여 내용 일치 번역을 더 선호했던 히에로니무스조차도 성경의 번역에서는 어순까지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경에서는 어순도 신비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⁹⁾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어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마태복음 1:1을 예로 들어 보자.

GNT ⁶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υὶδ υἱοῦ Ἀβραάμ.
『개역개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공동개정』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새번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새한글』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설명이 언급되는 순서에 주목해 보자. 기존 번역본들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윗의 자손’에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그 순서를 뒤집어 놓았다. 원문의 어순을 따른 것이다. 사실 외국어 역본들은 영어, 독어, 불어 모두 원문 어순을 그대로 따랐다. 유독 우리말 성경 번역본만 원문

29) P. W. Comfort, *Essential Guide to Bible Translation*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2000), 105.

의 어순과 달리 번역하였다. 아마도 족보에서 윗대가 먼저 언급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더 어울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서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도 윗대로부터 아랫대로 소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원래 저자는 1:1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급 순서를 뒤집어 놓을 때, 나름대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드러나려면 우리말 번역에서도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까닭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였다.

4.2.4. 인칭대명사 강조 용법을 살린 번역

그리스어에는 우리말 번역에서 잘 살리기 어려운 특별한 용법이 있다. 바로 인칭대명사 강조용법이다. 동사의 활용 형태 안에 주어의 인칭과 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는 주어를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동사의 주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사의 주어를 특별히 강조하려고 할 때, 인칭대명사를 밝혀서 적음으로써 강조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주어의 유무를 통해서 주어의 강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리스어의 인칭대명사 강조용법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야말로’같은 보조사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사의 어감 차이로 인칭대명사 강조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다. 불어 성경 *French Bible en français courant*(1997)에서 이 용법에 주의를 기울인 번역을 가끔 볼 수 있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인칭대명사 강조용법을 살리는 번역의 어려움과 한계를 잘 알면서도 부분적으로 강조용법을 살리는 번역을 시도하였다. 딱히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인칭대명사 뒤에 쉼표가 있을 때는, 그리스어 원문의 인칭대명사 강조용법을 의식한 번역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한 예로, 마가복음 1:8(“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을 보면 ‘나는’과 ‘그분은’ 뒤에 쉼표가 붙어 있는데, 인칭대명사 강조용법을 의식한 번역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4.2.5. 원문의 문학적 갈래와 문체적 특징을 고려한 번역

신약에는 여러 문학 갈래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복음서와 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산문으로 기록되었지만, 운문으로 된 부분도 있다. 편지글에도 두 종류가 있다.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가 하면 개인에

게 보낸 편지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학 갈래와 글의 형식도 번역에서 고려하였다. 특히, 독자들의 눈에 단번에 들어올 부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 ‘스가랴의 찬양’ 등 운문으로 된 본문을 시문 형식으로 번역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복음서의 대화문들을 대화 상황에 맞추어 입말체로 번역한 것도 새로운 특징이라 하겠다. 한 예로, 운문으로 된 누가복음 1:68-69는 이렇게 번역되었다.

“찬양받으시기를! 주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굽어보시고 풀어 주셨기 때문이네.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네,
 주님이 부리시는 종 다윗의 집에서.”

어순을 자유롭게 도치시키기도 했고, 행갈이를 통해 시행의 구분이 되도록 했다.

더 미시적으로 문체적 차이가 확인되는 곳에서는 그 차이도 번역에 반영하고자 했다. 우리말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데, 굳이 ‘~한테’와 ‘~에게’라는 번역어를 구분하여 번역한 것이 그러한 보기에 해당한다. 특히 복음서에서 복음서 저자들은 때로는 ‘프로스 + 대격’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여격’을 쓰기도 하는데, 전자는 ‘~한테’로, 후자는 ‘~에게/~께’로 번역하여 복음서 저자들 사이에, 또는 단락들 사이에 문체적 차이가 있음을 의식하며 번역하였다. 이러한 미세한 구분은 병행본문 사이의 문체적 차이, 또는 같은 복음서 안에서 다른 전승 자료에서 온 부분을 추정해 보도록 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가 너무 가볍게 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냥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번역하였다. 또한 마태복음에 자주 사용되는 부사 τότε(그때에)나 마가복음에 자주 사용되는 부사 εὐθύς(곧바로)의 경우에는 번역어를 최대한 일관되게 유지하여, 민감한 독자들이 이 부사의 반복 사용 경향을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번역하였다.

4.2.6. 원문의 수사적 기법과 신학적 특징을 고려한 번역

마가복음 1:10과 15:38은 σχίζω 동사를 매개로 수미상관(inclusio)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마가복음의 저자는 병행 본문에서 사용된 ἀνοίγω 동사와는 달리 독자들의 주목을 끌 만한 σχίζω 동사를 사용하였다. 이 구절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야 64:1의 קרע 동사를 칠십인역에서 ἀνοίγω 동사로 번역한 것을 볼 때, 이러한 마가복음의 단어 선

택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마가복음 1:10 (σχιζομένους)과 15:38(ἐσχίσθη)의 수미상관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만의 특별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마가복음의 두 구절 사이에 이런 수사적 관련성이 있음을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도 같은 번역어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마가복음 1:10의 σχιζομένους를 ‘찢어지다’로 번역하였다.

각 책별로 독특한 신학적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것이 번역에서 묻히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ἐπιστάτα(눅 5:5 등)라고 하는 반면, 호의적이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διδάσκαλε(눅 7:40 등)라고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ἐπιστάτα는 ‘스승님’으로, διδάσκαλε는 ‘선생님’으로 번역하여, 우리말 번역본으로 읽는 독자들도 누가복음 저자의 독특한 언어 사용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 우리말 어법에 맞는 번역

어법은 말의 일정한 법칙을 가리킨다. 따라서 어법에 맞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관용적인 용례에도 부합하여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할 것이다. 터무니없이 독특한 어법을 통해 소통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어법에 맞는 번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새한글성경』에서 어법에 맞는 번역을 추구한다고 할 때에도 그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자연스러운 관용적 표현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 언어 사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서양 말에서는 발달되지 않은 존대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그리고 최근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차별 언어를 피해야 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소통의 효율성에 걸림돌이 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외래어 고유명사의 표기법이다. 외래어의 경우, 성경에 사용된 표기법과 교과서에 사용된 표기법이 달라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이런 점들도 고려하여 번역했기 때문에, 기존 번역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특징들이 눈에 띄는 것이다.

4.3.1. 높임법과 입말체의 반영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 일어났던 삶의 이야기들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서라면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떤 말투를 사용하였을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앞세워 ‘해라’체로 말씀하셨을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활동하셨다면 어떤 말투로 말씀하셨을지를 고려하여 대화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투를 결정하였다. 이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높임법의 사용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은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투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 만나보면 어떤 느낌이 생길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마 23:1-11; 막 12:38-40; 눅 20:45-4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마 23:13-36), 성전에서 논쟁하실 때(막 12:13-17; 마 22:15-22; 눅 20:20-26),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말씀하실 때(막 16:14-18; 마 28:16-20;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다양하게 마침표가 달라진 점에 주목해 보면서 복음서를 읽는다면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입말체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에 사용된 그리스어가 일상 그리스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서신서에서 바울, 베드로, 요한의 어투가 기존 번역과 달라진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투가 달라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특히, 교회의 회중을 수신자로 하여 보내는 편지에서 목회자요 신학자인 발신자들이 ‘해라’체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목회서신의 경우에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 편지가 오가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나이 지긋한 선배 목회자가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편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번역어투를 달리 하여 번역했다. 한 예로, 디모데전서 1:1-2는 이렇게 번역되었다.

“바울이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네.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희망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지. 디모데에게, 곧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리기를 비네!”

4.3.2. 외래어 표기의 개선

『새한글성경』에서 정한 외래어 표기의 원칙은, 『개역개정』의 음역을 존중하되,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고유명사들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과서 표기법과 달랐던 성경의 외래어 표기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였다. 기존의 이집트(애굽), 티레(두로), 아테네(아덴), 마케도니아(마케도냐), 시리아(수리아) 등이 그러한 보기에 해당한다. 사람 이름의 표기도 일부 개선하였다. 아폴로(아블로), 필립(빌립), 토마스(도마) 등이 그러한 보기에 해당한다.

4.3.3. 장애인과 질병 관련 용어의 개선

그동안 장애인과 특정 질환자들이 성경에 사용된 표현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만 보는 일은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장애인 관련 용어를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번역하고, 일부 질병 관련 용어들도 개선하였다.³⁰⁾ 장애인 관련 표현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마태복음 15:30-3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p>GNT⁶</p>	<p>30 καὶ προσῆλθον αὐτῷ ὄχλοι πολλοὶ ἔχοντες μεθ' ἑαυτῶν <u>χωλοὺς</u>, <u>τυφλοὺς</u>, <u>κυλλοὺς</u>, <u>κωφοὺς</u>, καὶ ἑτέρους πολλοὺς καὶ ἔρριψαν αὐτοὺς παρὰ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καὶ ἐθεράπευσεν αὐτούς· 31 ὥστε τὸν ὄχλον θαυμάσαι βλέποντας <u>κωφοὺς</u> λαλοῦντας, <u>κυλλοὺς</u> ὑγιεῖς καὶ <u>χωλοὺς</u> περιπατοῦντας καὶ <u>τυφλοὺς</u> βλέποντας· καὶ ἐδόξασαν τὸν θεὸν Ἰσραὴλ.</p>
<p>『개역개정』</p>	<p>30 큰 무리가 <u>다리</u>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31 <u>말 못하는 사람</u>이 말하고 <u>장애인이</u> 온전하게 되고 <u>다리</u> 저는 사람이 걸으며 <u>맹인</u>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p>
<p>『새한글』</p>	<p>30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u>지체장애인</u>, <u>시각장애인</u>, <u>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u>, <u>언어장애인</u>, 또 다른 <u>많은 장애인</u>들과 함께였다. 31 그 무리가 놀라워했다. <u>언어 장애인</u>들이 말을 하고, <u>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u>들이 건강해지고 또 <u>지체장애인</u>들이 걸어 다니고 또 <u>시각장애인</u>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p>

질병이나 환자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에서는, ‘간질’을 ‘뇌전증’으로(마

30) 참고, 채은하, “장애인 호칭의 비교와 대안 연구 — 히브리어 성경, 칠십인역과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0 (2017), 95-116.

4:24), 마태복음 8:2에서 ‘나병’을 ‘심한피부병’으로(마 8:2),³¹⁾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척추장애인’으로(눅 13:11) 개선한 것 등이 그러한 보기에 해당된다.

5. 나가는 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의의

지금까지 우리는 『새한글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었고, 번역 원칙은 무엇이었으며, 그 번역 원칙이 실제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새한글성경』은 디지털 시대의 독서 방법 변화에 발맞추어 원문을 짧은 문장으로, 순차적으로(linear)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 원칙이 원문 충실을 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가져다준 듯하다. 『새한글성경』의 번역자들은, 원문을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번역함으로써, 원문의 형식을 따르는 번역이 가능함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새한글성경』은 번역 이론 논쟁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한글성경』은 기존의 어떤 성경보다도 원문 단어의 1차 의미, 원문의 어순, 원문의 시제, 원문의 특별 용법 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원문의 형식과 일치되도록 번역하는 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2021년 11월에 출간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 대한 지금까지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문과 대조가 가능한 목회자나 신학생들 사이에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원문의 어순이나 원문의 차이를 번역에서 잘 반영했다는 관찰에서 나온 반응들이다. 그렇다면 형식 일치 추구가 추구하는 번역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에게서 나온 반응으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기존의 성경에 비해 훨씬 쉽게 읽히고 이해가 잘 된다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내용 일치 번역이 추구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성서학자들이 송곳 검증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기술해 본다면, 형식 일치 추구하고 내용 동등성 추구 사이의 긴장을 극복하며 디지털 시대라

31) 조지윤, “λεπρα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94-121.

는 새로운 독서 환경에 부합하고자 시도한 새 시대의 실험적 번역본이라고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새한글성경』, 형식일치, 내용 동등성, 다매체.

bible translation, New Korean Translation, formal correspondence, dynamic equivalence, multimedia.

(투고 일자: 2022년 7월 28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9월 5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주한,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 『신약연구』 20 (2021), 729-768.
- 네이버 사전, “대다”, <https://dict.naver.com/> (2022. 4. 12).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임성욱, “성경 번역의 문화정치: 『새한글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장애 및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42 (2022), 169-202.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1: 로스-루미스 문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2.
-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조지윤, “λέπρα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94-121.
- 채은하, “장애인 호칭의 비교와 대안 연구 — 히브리어 성경, 칠십인역과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0 (2017), 95-116.
- Brunn, D., *One Bible, Many Versions: Are all Translations Created Equal?*,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2013.
- Comfort, P. W., *Essential Guide to Bible Translation*,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2000.
- Jahr, H., “Die BasisBibel: Herausforderungen einer Bibelübersetzung im digitalen Zeitalter”, M. Lange and M. Rösel, eds., *Was Dolmetschen für Kunst und Arbeit sei: Die Lutherbibel und andere deutsche Bibelübersetzungen*,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4.
- Nida, E. A. and Taber, C.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69.

<Abstract>

**Translation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NKT)
with the focus on Its New Testament**

DooHee Lee
(Korean Bible Socie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and highlight translation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hereafter NKT) with its New Testament in focus. There are already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hich pursues the principle of formal correspondence,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dynamic equivalence, and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which attempts to optimize merits of these two translations. There seem to be all kinds of translations ranging from more literal to more reader-friendly ones. Then, why do we need another new translation?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any new translation or revision of existing translations: changes of language and developments of biblical scholarship. These two factors taken into account, periodic update of existing Bible translation is needed to make it possible for people to read the Bible more accurately and easily. In case of the NKT, there was another significant factor in deciding to launch the new translation project, which is the change of media. Korean Bible Society thought that new generation familiar with new media such as smart phones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require a new Bible translation optimized for their unique needs. Thus, Korean Bible Society referred to the BasisBibel which is designed for the same kind of target audience in Germany. BasisBibel is the first Bible translation in the world that considers the change of media to be a significant factor impacting on the Bible readers. As the result, the NKT came to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in two dimensions. One dimension is related to coping with the change of language and media: (1) short sentences composed of less than 16 words and (2) linear delivery of information. The goal of these features is to enhance readability and communication. The other is related to an essential principle of translation, which is faithfulness to the original text: (1) use of the most recent critical edition of Greek New Testament

(UBS 5th edition), which shows 33 changes in the Catholic Letters, and (2) meticulous attention to the etymology of the Greek words, word order, tenses (especially historical present), and special usages of Koine Greek. It is now at readers' hands to evaluate how much the NKT has achieved its goal to satisfy two fundamental goals of all Bible translations: being more readable and more faithful to the original Greek New testament.